

# MZ세대, 비싸도 '착한제품' 고른다...공정·정의 중시

상의 380명 대상 조사... 64.5% 'ESG 실천기업 제품 구매' 기업 '일자리'(28.9%)보다 '투명·윤리경영'(51.3%) 중요시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한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들은 더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MZ세대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 3일 발표한 'MZ세대가 바라보는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64.5%)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MZ세대는 '가치소비'를 반영하는 신조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가치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추구·46.6%)를 가장 많이 꼽아 제품 구매시 성능보다 심리적 만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미닝아웃'(가격 품질 외 요소 통해

개인신념 표출·28.7%), '돈쫄'(돈으로 혼내주는 구매운동·10.3%), '플렉스'(자랑 과시형 소비 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대학 3학년 김모양은 "과거에는 브랜드와 가격이 상품 선택의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고 품질도 만족스럽다면 주저 없이 장바구니에 담는다"며 "MZ세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겐 '불매운동', 착한기업·가게에는 '돈쫄'이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MZ세대가 친환경 제품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크다고 꼽은 품목은 '무라벨 페트병'(41.1%)이었다. 이어 '전기·수소차'(36.3%),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13.7%), '친환경 세제'(7.9%)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 이재혁 ESG연구센터장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보다 가성비 따지는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비슷한 품질이라면 ESG를 실천하는지가 구매기준이 되는 등 자신의 신념에 맞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세대 답게 사회관계망(SNS),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ESG 이슈가 쉽게 대중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ESG경영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기업의 역할인 '일자리 창출'(28.9%)보다 '투명윤리경영 실천'(51.3%)이라는 응답이 22.4%p 높게 나왔다. 공정·정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인식과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환경보호'(13.2%), '국가 성실납세'(2.1%), '봉사활동'(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을 고려할 때 ESG경영 실천기업인지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MZ세대는 '환경·사회문제 등 시대흐름'(50.3%), '향후 성장발전가능성'(29.5%), '기업문화·근무환경이 좋을 것으로 판단'(18.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 ESG경영실 윤철민 실장은 "공정하고 정의를 중시하고 코로나19로 취업을 겪고 있는 MZ세대의 시대·사회적 가치관이 기업에 바라는 역할에 투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MZ세대가 CEO가 된다면 기업경영의 최우선 목표를 어디에 둘까'라는 질문에는 '기업경쟁력향상'(82.1%), '기업문화·근로자복지향상'(61.1%), 'ESG경영실천'(60.3%)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반면 '값싼 양질의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36.8%)', '주주 권익 보호'(23.4%)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Z세대들은 ESG경영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 하는 국내기업으로 삼성, 에스케이, 엘지, 오투기, 유한킴벌리, 풀무원, 현대차(가나다 순)를 꼽았다. '향후 ESG경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MZ세대들은 '전반적인 국민인식 향상'(38.4%),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27.9%), '대기업 솔선수범 실천'(27.6%) 등이라고 답해 국민과 정부, 기업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ESG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MZ세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세제·금리혜택 제공'(36.6%), '정부차원의 ESG경영술루션·포털 등 인프라 구축'(36.3%)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자발적인 ESG경영 추진위한 재정지원'(14.5%), 'ESG 전문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제공'(11.6%) 등이 뒤를 이었다. 진기업정서 확산을 위해 기업 및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MZ세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통한 경제성장 기여'라는 응답을 각각 36.6%로 동일하게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SG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사회공헌이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여론과 소비의 주도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가 가격이 더 비싸도 착한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 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해피바스, "이젠 바디워시도 비건" 신제품 6종



아모레퍼시픽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가 오리지널 컬렉션 바디워시 6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해피바스의 베스트셀링 향만 선택해 세련된 발향은 물론 피부에 남는 은은한 잔향이 특징이다. 시그니처 애플&바나나 향을 담은 오리지널 제품을 포함해 베이비 파우더, 프레시 로즈, 슝라벤더, 체리 블로섬, 클린 코튼 등 총 6가지로 구성했다.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

독하고 피부 일차 자극 테스트와 안자극 대체 테스트를 완료했다. pH4.5 약산성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동물성 원료와 광물성 오일 등 10가지 특정 성분을 넣지 않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디 피부를 위한 고효능 성분도 담았다. 오리지널, 베이비파우더, 클린코튼 바디워시에 함유된 판테놀 성분은 피부 수분 보호막 역할을 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AHA 성분이 들어간 슝라벤더, 프레시 로즈, 체리블로섬 바디워시는 각질을 정리해 매끈한 피부결 유지를 돕는다. 신제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원료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했다. 또 생분해성 성분을 99% 배합한 제형으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 지구에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가능하다. 해피바스 오리지널 컬렉션 6종은 전국 마트 및 아모레몰 등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며 해피바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 CU, 'NCT-REX' 캐릭터 콜라보 간편식 출시

CU가 더핑크퐁컴퍼니와 손잡고 아이돌 캐릭터 'NCT-REX'를 활용한 간편식 및 HMR 시리즈를 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NCT-REX는 NCT DREAM과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핑크퐁이 공룡을 테마로 기획한 콜라보레이션 캐릭터다. NCT-REX를 주인공으로 하는 협업 영상 약 6000만 건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콜라보 상품은 NCT DREAM의 정규 1집 타이틀곡인 '맛'을 모티브로 맵

한 맛을 강조한 도시락, 피자, 떡볶이 등 총 8종으로 구성했다. CU는 노래의 부제에 맞춰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핫소스를 주 원재료로 사용했다. 'HOT 돈가스 삼각김밥(1200원)', 'HOT 돈가스 김밥(3000원)'은 핫소스를 바른 돈가스를 속재료로 활용한 상품이며, HOT 양념치킨 도시락(7900원)은 후라이드 치킨을 핫소스 양념으로 버무린 안주형 도시락이다.

김재환기자

## 삼성 vs LG, 프리미엄 TV 이어 사운드바 '소리 전쟁'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규모 2026년까지 해마다 3.5%씩 성장 전망



집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생하고 실감 나게 소리를 구현하는 사운드바 인기가 높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정밀한 화질로 2022년 프리미엄 TV 시장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사운드바 시장도 커지면서 라이벌 간 '소리 전쟁'까지 예고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 규모는 2019년 이미 50억 달러(약 6조원)를 돌파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사운드바 시장이 2026년까지 해마다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운드바는 기다란 막대(바·Bar) 형태로 제작된 스피커다. 기존 홈시어터 스피커에 비해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음향의 반사각을 이용해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영상미만큼 고품질

오디오를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사운드바는 프리미엄 TV시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2022년형 사운드바 2종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최상위 모델인 'Q시리즈'로 TV와의 연결성을 한층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시장 확대에 맞춰 Q시리즈와 슈퍼 슬림 사운드바를 포함해 상반기 내 13개 이상의 신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Q시리즈는 기존 모델 대비 개선된 'Q 심포니' 기능을 적용했다. Q심포니는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했을 때 두 기기에 설치된 스피커를 동시에 이용해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 주는 삼성 독자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삼성 오디오랩을 설립했다.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Q 심포니도 삼성 오디오랩의 전문 튜닝을 거쳐 TV와 사운드바간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한 연구 결과물이다. 성일경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홈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 TV 화질 못지 않게 사운드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더 풍부해진 음향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을 통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울해 스피커 3개를 탑재한 2022년형 사운드바 신제품을 공개했다. LG 사운드바(모델명: S95QR)는 긴 사각형 형태의 본체 양 끝에 소리를 천장 방향으로 보내는 업피어링 스피커를 각각 1개씩 탑재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본체 중앙에 업피어링 스피커 1개를 추가하고 음향을 세밀하게 조절해 정교한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LG전자는 음향 기술 향상과 함께 사운드바 제작 기술에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경보호청(EPA)이 주관하는 미국 'SMM(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어워드'에서 친환경 제품 부문에서 챔피언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운드바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제품 본체와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TV 스피커가 구현하지 못하는 압도적 몰입감을 전하는 사운드바 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면서 "최신 영화는 물론 콘솔 게임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화면과 함께 음향 기술도 중요시하면서 사운드바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지방은행 손잡은 네이버...전북은행과 '6%' 적금 출시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0만명 선착순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북은행과 오는 8일 연 6% 금리인 '네이버페이XIB적금'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가 지난해 7월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을 맺은 이후 협업한 첫 사례다. 전북은행은 지역 기반인 한계를 넘어 MZ세대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고객층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1금융권에서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본 금리는 연 3%다. 네이버페이에 전북은행 수시입출금 계좌를 연결한 뒤 포인트 충전이나 계좌 간편결제 사용 이력이 한 번만 있다면 우대금리 3%포인트가 추가된다. 월 가입금은 최대 20만원, 가입기간은 6

개월이다. 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0만명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네이버페이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 모두 네이버페이를 통해 연결되는 전북은행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구조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앞으로도 지방은행과 꾸준히 협력해 이들의 디지털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을 위한 좋은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앞으로도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금융권이 드리는

# 연 6% 적금

2022.04.08. 9시 OPEN

## 10만명 선착순

2022.4.8 기준, 세전, 우대조건 충족 시

오유나기자